

실손의료보험 정책세미나 환영사 (2022.12.8.)

안철경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에 응해주신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님과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미국보험학회, ARIA 참관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환영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8월, 3일에 걸친 학회 일정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보험감독관의 발표와 보험업계의 ESG 발표**가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독자의 발표 주제는 미국 장기간병보험(LTC) 시장의 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 LTC 상품은 19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였으
나, 2002년 70만 건을 정점으로 2021년 5만 건에 불과한 시장이
됐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논의로 저의 예상은 당연히 위기의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소비자의 보장 부족(Protection Gap) 해결에 집중되었습니다.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여 상품 건전성을 제고할 것과,
보험료 수익 안정화를 위한 연금과 사망보험 결합상품을 제안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높인 보험료 조정과 담보 조정을
보험감독자가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험업계의 ESG 발표에서는
규제를 통해서라도 보험회사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보험업계에서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에서도
公私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